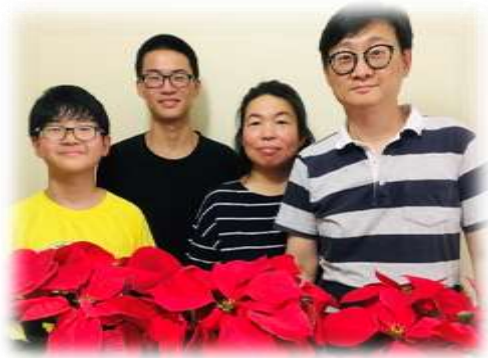


펠리스 나따우 (Feliz Natal, 포어 성탄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브라질 모지에서 문안합니다.

남반구의 뜨거운 한 여름 크리스마스의 열기를 한 겨울의 북반구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올해는 다섯 식구나 아닌 네 식구가 브라질 모지에서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첫째 예빈이는 한국에서 공부중입니다).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며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그곳을 3주만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놀랍게 믿음이 성장했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온 지 만 3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내년 3월이면 4년이 됩니다. 년수가 중요하진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브라질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 파라과이 선교훈련



지난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파라과이 까라자오 라는 소도시를 바나나훈련생과 신학생 7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원래 신학생 웰벨치가 함께 가려 했으나 여행 전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은 선교사님과 제가 거의 왕복 3,000킬로미터의 장거리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브라질 모지에서 출발해 국경 가까운 도시에서 일박하고 다시 다음 날 출발해서 파라과이 까라자오 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인구는 5만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에

기독교 인구는 0.1%, 50명, 개신교 교회는 단 3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머물던 그 시기에 어찌나 더운지 낮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그늘에 앉아 떼레레 라는 파라과이 전통 차를 나누어 마시며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조금 선선해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땅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 땅을 축복하였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땀 흘리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조금이나마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 **브라질 바나바 목회자 훈련 8회 졸업식**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바나바. 그의 이름과 삶을 본받아 이강천 목사님께서 만든 목회자 훈련. 브라질에서는 유정은 선교사님께서 올해로 8년째 진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올해 브라질 목사님들과 함께 바나바 훈련을 참여하여 11월 30일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어로 진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언어 훈련 반, 목회 훈련 반, 유선교사님의 훈련 진행을 같이 돕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번 바나바훈련 참여에 대한 독려를 받았지만 계속 미루다가 브라질에 와서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훈련도 같이 갔다 오고, 한 달에 2박3일 함께 숙식하며 삶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회나 선교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번 훈련을 통해 브라질에서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 2019년 신학교 2학기를 마무리하며



2019년 2학기에 저는 성서지리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성서 지도를 그리고 성서의 지명을 함께 공부하며 지도를 통해 성서를 조금 더 알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포어로 가르치다 보니 서로 답답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브라질에서 살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2월이면 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다음에는 한국에서 선교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1. 2020년 2월부터 약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계양에 있는 교단 선교사 안식관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정착과 영적 충전, 막내 예성이의 학교적응을 잘 하도록
  2. 둘째 예겸이는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내년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시 방문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3. 내년 2월 안식년 들어가기 전까지 사역 마무리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4. 가족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5.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 기숙사 및 강의동 건물 건축을 위한 재정모금과 건축을 위해
-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브라질 모지에서 박지형, 안지은, 예빈, 예겸, 예성 드림.